

2009 아름다운 동행, 그 이후 ① 화순출신 민사고 김찬미

“학교서 ‘봉사의 여왕’으로 통해요”

“저는 ‘나눔 바이러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주는 나눔의 순환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올 4월 후원자의 도움으로 영재학교인 민족사관고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김찬미(16·사진)양은 교내에서 ‘봉사의 여왕’으로 통한다. 공부는 기본이고, 교내·외 봉사활동 등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미양은 올해 저소득층 영재학생과 후원자를 연계해 주는 ‘덕고 장학생’제도로 민족사관고에 입학했다가, 후원이 끊겨 공부를 중단



찬미양은 내년부터 매주 두 차례씩 학교 인근 강원도 오지 마을 학생들을 찾아가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활동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산간오지 마을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싶어 하다.

후원자의 도움을 받은 찬미양의 가슴속에서 ‘나눔 바이러스’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민사고 안상준 교사는 “찬미는 천성이 착하고, 공부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가 주목하는 학생”이라며 “모두들 찬미를 말할 때면 ‘너무 열심히 사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말했다.

찬미양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저를 도와준 후원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면서 “현재의 봉사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고, 앞으로 의사가 돼 소외계층을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민사고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찬미양은 외국 명문대 진학도 어렵지 않은 실력지만, 의료 봉사자의 꿈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웠다고 한다.

찬미양은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보았다”면서 “이러한 분들을 돕고 사는 게 꿈이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보도 후 후원자 지원 학업 지속

“의사 꿈 이뤄 평생 소외계층 돕고 살게요”

할 위기에 놓였다는 광주일보의 보도 이후(4월 15·23일자 7면)새로운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찬미양은 “어려움에 처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맑게 웃었다.

찬미양의 학교생활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은 이후 180도 바뀌었다. 공부에만 전념하던 기존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공부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찬미양은 영재들만 모였다는 민사고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찬미양은 후원을 받은 뒤 곧바로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자격 과정을 이수한 뒤 교내 상담 봉사클럽인 ‘속삭임’에도 가입했다.

2학기부터는 학교 상담실 인턴 학생으로 지원해 각종 업무를 돕고 있으며, 쉬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휴토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과 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등의 행사때마다 다과를 준비하고 뒷정리를 도맡아 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몰래 산타 퍼레이드 사랑의 몰래 산타운동 광주본부는 지난 19일 광주공원 원형광장에서 ‘2009 사랑의 몰래 산타 발족식 및 퍼레이드’ 행사를 열었다. 사랑의 몰래 산타 대원 600명은 광주시와 광주·전남진보연대 후원으로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소외계층 220가구 아동들에게 깜짝 파티와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전문계고 인기 상승

경쟁률 1.18대 1... 특성화고 중심 200여명 탈락

올해 광주지역 전문계 고교(옛 실업고)를 지원한 학생 중 특성화 고교를 중심으로 최소 200명 이상이 낙방하는 등 전문계고의 인기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은 전문계 고교 10곳 중 6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따르면 광주지역 13개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4천705명 정원에 5천557명이 지원,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7대 1과 2007년 1.14대 1에 비해 0.01~0.04%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문계고 진학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교인 광주자동차설비학교는 80명 정원에 313명(3.9대 1), 전남공고는 490명에 906명(1.85

대 1)이 지원했다. 또 광주전산고는 1.45대 1, 광주자연과학고 1.3대 1, 광주공고 1.17대 1을 기록했다. 내신성적 30% 이내 성적 우수학생도 600~700명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최근 도내 62개교 전문계고 신입생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3%인 38개교가 정원에 미달했다. 전체 지원자 수도 7천856명으로 총 정원 7천996명의 98.2%에 불과했다. 그나마 특성화 고교로 지정된 15개교 중 12개교가 정원을 채우거나 넘겨 체면을 살렸다. 한국항공물류고는 100명 정원에 314명이 지원, 3.14대 1을 기록했으며 전남보건고 2.5대 1, 전남조리과학고 2.09대 1 등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



오늘 날씨

빙판길 운전조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눈이 오다가 낮부터 개겠다.

광주	구름 조금	-4/6℃
목포	흐린 뒤 맑음	1/5℃
여수	구름 조금	-1/7℃
완도	구름 조금	-5/5℃
해남	구름 조금	-5/5℃
장흥	흐린 뒤 맑음	-3/7℃
고흥	흐린 뒤 맑음	-3/6℃
순천	맑음	-5/5℃
영광	흐린 뒤 맑음	-1/7℃
진도	눈 온 뒤 맑음	-6/4℃
남원	맑음	-9/4℃
목포	흐린 뒤 맑음	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목포 04:22	09:4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여수 11:47	05:1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최저/최고	-2/10	-1/10	2/11	4/8	-1/3	-2/4

고교생 방학 중 대학 학점 미리 따다

광주여대 ‘선이수제’ 운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고등학생이 방학기간 중 대학에서 강좌를 듣고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를 운영한다. 광주여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09년도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 교육기관으로 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여대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1월 29일까지 3주 동안 글쓰기·환경과학·컴퓨터과학 등 3개 과목에 대해 6

학점(한 과목당 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과목선이수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을 이용해 계절학기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는 20~30명이 한 반을 이뤄 시행 대학의 교수가 직접 가르치며 1명의 조교를 활용해 실제 대학생들이 배우는 강좌와 같이 운영된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든 모든 대학교에서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various services including real estate, education, and local businesses. It features multiple columns with text and small images.

Large advertisement for '이태리가구' (Itaeriga-gu)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detailed text about their services and products.

Larg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lesi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detailed text about their services and products.